

영주시 노인복지관

골목과 마당을 품은 모두의 거실

장기욱
이규상

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642-10
용도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대지면적	1981,00m ²
건축면적	1040,89m ²
연면적	2335,28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	8,38m
건폐율	52,54%
용적률	81,89%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구조설계	윤구조기술사사무소
설계	장기욱·이규상
설계담당	박찬호·방누리·윤선경
시공	성일토건주식회사
기계설계	정인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주)대경전기설계사무소
설계기간	2013. 12.~2014. 4.
시공기간	2015. 9.~2017. 1.
공사비	47억 원
건축주	영주시청



영주시 노인복지관 전경



영주시 노인복지관 설계는 유토피아적인 희망에서
출발하였다. 노인들과 일반 시민이 긍정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옛날 인심이 살아 있던
우리네 골목길의 정겨운 일상이 재현되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 흥이 넘치는 노년생활을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노인 또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뜨리기를 바랐다.



새롭게 조성된 중앙광장에 자리한 영주시 노인복지관



영주시 노인복지관 좌측 전경



© 김재은



© 김재은



© 김재은

상 영주시 노인복지관 우측 전경
하 풀목길과 마당의 구성을 따온 영주시 노인복지관



상 모든 세대를 위한 쉼터 녹색마당
하·좌 골목길을 통해 열린 사이마당
하·우 즐거운 일상이 재현되는 이벤트마당



◎ 김재영



◎ 김재영



◎ 김재영

상 노인복지관을 순환하는 계단
중 이벤트마당으로 향하는 길
하 창을 통해 보이는 녹색마당

새로 탄생한 배움과 즐거움의
터는 마을의 연장으로,
노인들의 넉넉한 사랑방으로
그분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아낼 것이다.
그 즐거움의 에너지는
삼각지마을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모든 영주시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 김계원



영주시의 새로운 '소통의 장소', 영주시 노인복지관

옛것과 과거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나이가 들어서 노인복지관 설계를 진행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늘 새롭고 과감한 디자인에 먼저 관심이 쏠려 있던 젊은 시절에 비해 지금은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 대한 가치를 차차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장소는 새로운 가치에 의해 변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지워지고 그 뿌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바뀌기도 하고 현재가치에서 눈 밖에 있는 장소는 서서히 낡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 '새로운' 가치의 효용성에 대해 요즈음은 의문이 생긴다. 인류는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옛것을 낡은 것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 인간의 성찰과 사고는 계속 발전해 왔는가? 단순히 삶의 양으로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새로운 것이 또는 삶의 확장이 더 이상 이 지구의 행복과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점차 무게를 두게 된다. 지금의 내 나이 쯤 되면 누구나 자각하게 되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한 우리네 사회에서 새로운 것은 늘 이슈가 되고 더 나은 해법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번 상상해 본다. 공공선(公共善)에 대해 지구상 모든 이들의 자각과 실천이 따른다면 문명이 가져다 준 혜택이 모두에게 분배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새로운 것 또한 모든 이에게 긍정적 가치를 불러오리라 의심치 않는다. 참으로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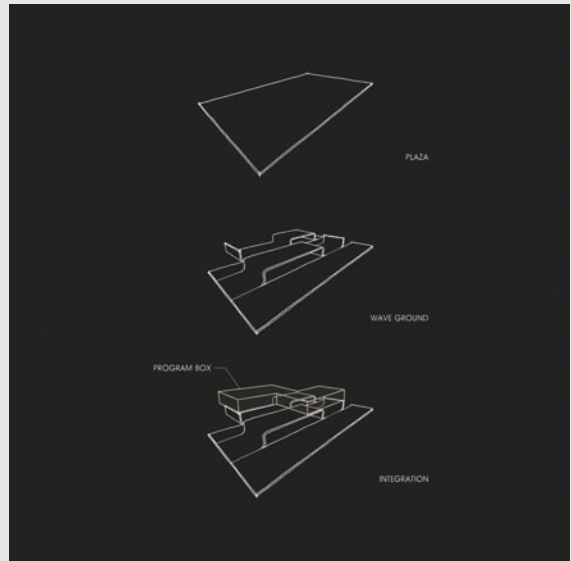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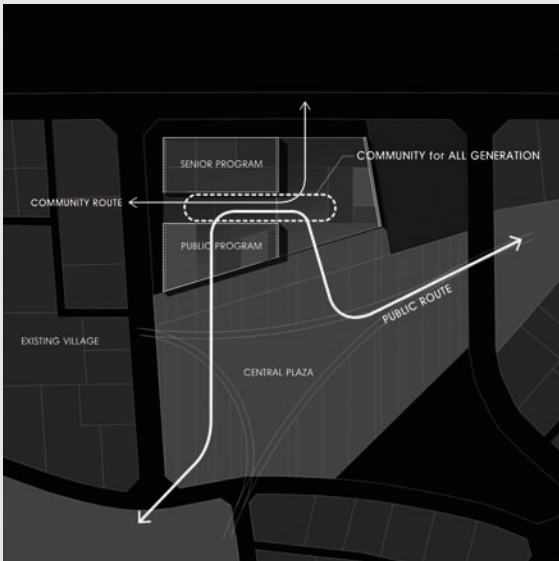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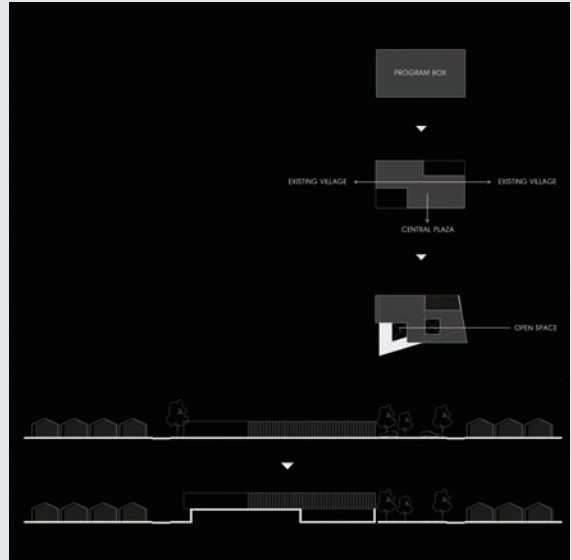
행복한 노년을 목격하는 공간

건축도 도시도 한때 희망 어린 유토피아적인 사조가 있었다. 이 사회와 함께 건축과 도시도 그 기제를 공공선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우선 순위를 잃은 오도된 공간환경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필히 공공선을 실천해야 할 건축이 있다. 많은 공공건축이 그래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학교와 복지관이다. 학교는 인생의 출발점에 선 이에게 공평한 기회 부여의 출발점이자 건전한 가치관을 잉태하는 또 하나의 '자궁'이다. 머무는 이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전 '태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관은 어떠한가?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보통은 신체적·정서적·금전적인 면에서 결여된 이들을 위한 시설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김재웅



상 영주시 노인복지관 전경
하 영주시 노인복지관 좌측 전경



노인복지관 다이어그램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적 가치를 잃은, 사회가 부양해야 할 점점 늘어나는 부담스러운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되기 일쑤이다. 노인복지관은 사회에서 한편으로 밀려난 그들만의 안전한 등지가 되어야 하는가?

누구나 노인이 된다. 점점 이 사회의 주력에서 밀려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길어지는 노년의 삶에 대한 보장이 걱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계속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풍부하고 즐거워지는 사회가 있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아도 되며, 남을 앞지르는 것에 맹목적인 가치를 두기보다는 천천히 가며 주위를 배려하는 공공선이 실천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도 절대 가치에 근접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노년의 삶에 대한 보장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노인들

영주시 노인복지관 설계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희망에서 출발하였다. 위치는 국토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된 영주시의 한가운데에 있는 삼각지마을이다. 이 삼각지마을은 중앙선·영동선·북영주선의 세 철로가 삼각 형태로 만나면서 가운데 고립되어 낙후된 지역이다. 영주시에 집중된 철로는 한때 교통요충지로서의 번영을 가져왔으나, 지금은 높은 철로 둔덕으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야기하는 물리적 방해물이 되었다. 이에 서쪽의 서천 변에서 삼각지마을을 지나 동쪽의 광승공원까지 연결되는 주요 도시보행축을 마련하고, 삼각지마을은 기존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중앙의 광장과 공원을 조성해 모든 영주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영주시의 새로운 ‘소통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복지관은 새롭게 조성된 중앙광장에 면하고 있다. 그만큼 모든 시민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다. 또한 노인과 일반 시민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필요하였다. 이것이 계획안의 방향을 설정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는데, 일반적인 노인복지관이 노인들 간의 횡적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대 간 종적인 접촉과 교류도 가능한 위치적 조건이다. 중앙광장에 면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녹색가게 그리고 공용식당을 배치하였다. 지하의 대강당은 필요하면 외부인들도 대관해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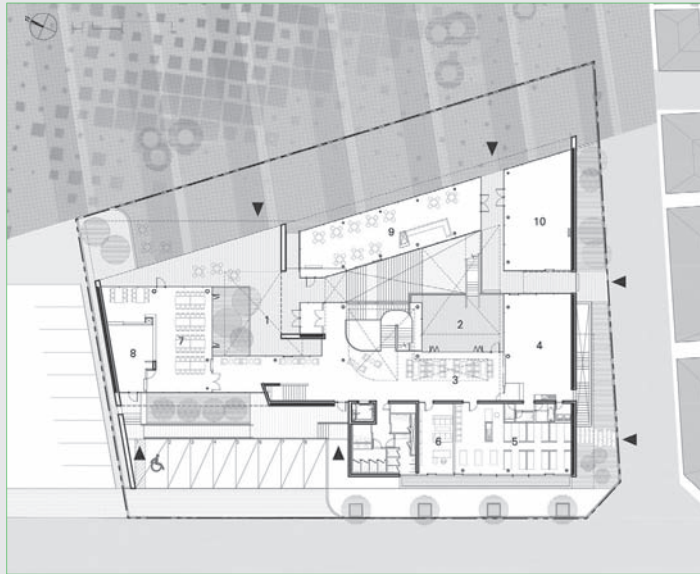
© 김재웅



상 영주시 노인복지관 우측 전경
하 골목길과 마당의 구성을 따른 영주시 노인복지관

지상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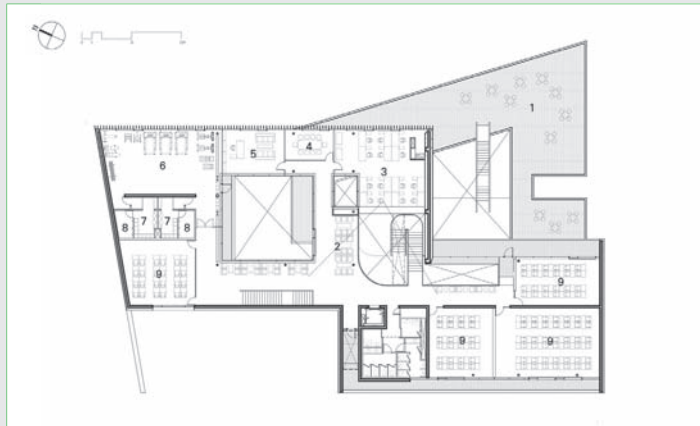
- 1 녹색마당
- 2 잔치마당
- 3 사랑방
- 4 주간보호센터
- 5 물리치료실
- 6 상담실
- 7 식당
- 8 주방
- 9 북카페
- 10 녹색가게



© 포이디아키텍트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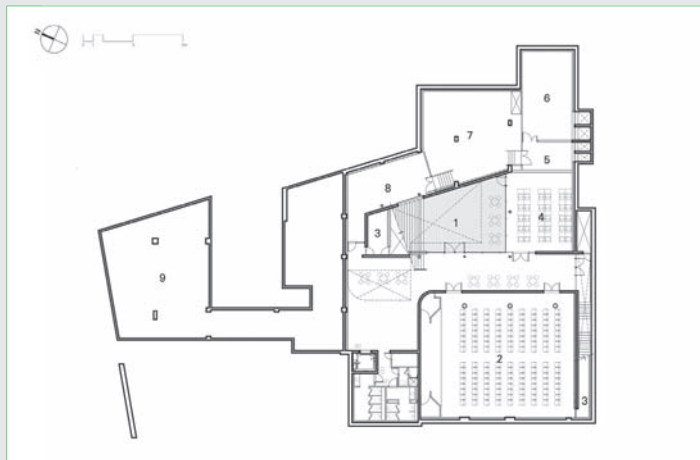
지상2층 평면도

- 1 이벤트마당
- 2 사랑방
- 3 사무실
- 4 회의실
- 5 원장실
- 6 체력단련실
- 7 탈의실
- 8 샤워실
- 9 교육실



지하1층 평면도

- 1 SUNKEN
- 2 대강당
- 3 창고
- 4 소강당
- 5 발전기실
- 6 전기실
- 7 기계실
- 8 공동작업장
- 9 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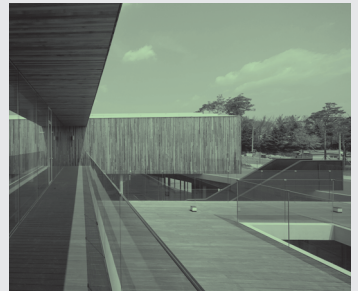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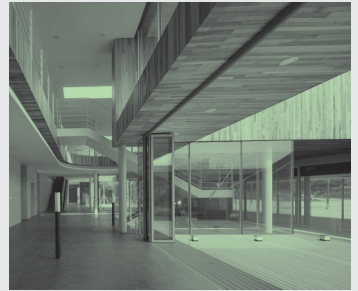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노인들과 일반 시민이 긍정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숨겨져 있는 노인이 밑반찬을 만들어 배식에 참여하며 본인의 특별한 레시피를 들려주는가 하면, 입담 좋은 어르신이 북카페에서 커피를 조제하며 일반 시민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여러 자리에 조성된 사이마당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노인들의 작품 전시를 감상케 하고 작은 음악회도 열면 어떨까? 마당에 면해 있는 사랑거실에서 바둑고수들의 행마도 구경하는 등 옛날 인심이 살아 있던 우리네 골목길의 정겨운 일상이 재현되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 흥이 넘치는 노년생활을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노인 또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뜨리기를 바랐다.

골목과 마당: 마을의 장소 유전자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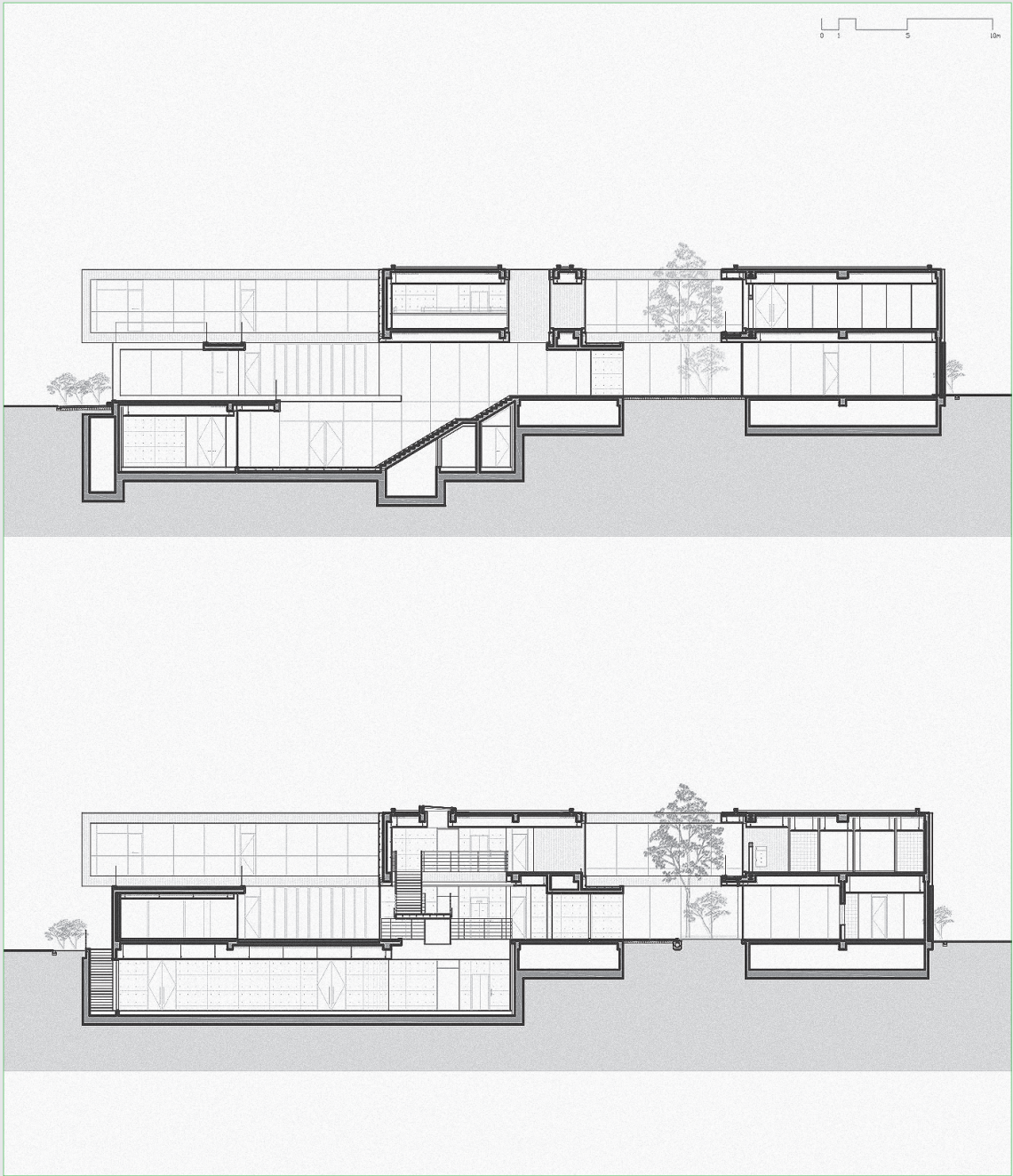
물론 이 작은 접촉이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 준 두 번째 계기가 있었다. 설계 전에 현지답사를 위해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남루한 슬레이트 지붕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과 담소가 끊이지 않는 조그만 마당이 나왔다. 집들의 대문은 대부분 마당과 골목길을 향해 열려 있었고, 이웃끼리 서로 가족인 것처럼 “오늘 저녁 맛있는 것 하나 먹으러 오라”거나 “같이 마당 평상에서 먹자”거나 일상 얘기부터 자식 얘기까지 그야말로 오늘날에는 보기 힘든 마을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생생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비록 집과 행색은 초라하였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넉넉한 사람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케 하는 자연스러운 마을 구성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노인복지관은 골목길과 마당으로 구성된 이 마을의 장소적 유전자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분들에게 노인복지관 건물은 낯설지 않다. 새로 탄생한 배움과 즐거움의 터는 마을의 연장으로, 노인들의 넉넉한 사랑방으로 그분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아낼 것이다. 그 즐거움의 에너지는 삼각지마을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모든 영주시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나이 들면 나도 저렇게 즐길 수 있겠지,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아’ 하며 세대 간 이념의 갈등보다 더 소중한 소통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

© 김재웅



상 모든 세대를 위한 칠터 녹색마당
중 골목길을 통해 열린 사이마당
하 즐거운 일상이 재현되는 이벤트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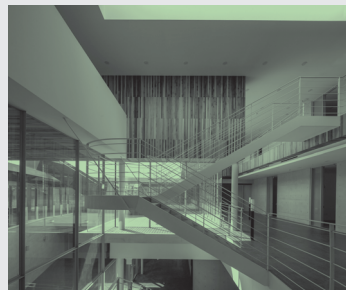
횡단면도

기억의 누적, 가치의 보전

모든 장소는 나름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가치는 오랫동안 그 장소의 많은 이가 긍정하여 살아남아 계승되고 있는 가치일 것이다. 그 장소의 물리적인 공간 역시 그것이 담았던 여러 소중한 행위의 가치와 분별해서 생각할 수 없다. 건축과 도시가 여전히 생동하고 있는 곳은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이에게 살아 있는, 무엇보다 훌륭한 교과서이다. 개성 있는 장소의 가치 발견과 보전은 우리네 도시의 색깔을 더욱더 다양하고 뚜렷하게 만든다. 그곳에서의 우리네 삶을 되살리고, 드러낸 장소적 지혜와 함께 풍성해지길 바란다.

삼각지마을은 초기에는 모두 밀어버리고 전체를 공원화할 계획을 세웠던 곳이다. 그러나 해안을 가진 여러 참여자들의 제안으로 마을의 근간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시간과 기억이 누적된 훌륭한 또 하나의 장소를 잃어버릴 뻔하였다. 웃음과 담소가 살아 있던, 활기찬 노인들의 에너지마저 지워 버릴 뻔하였다. 노인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전된 장소의 뿌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가 되새겨지기를 희망해 본다.

© 김재윤



상 이벤트마당으로 향하는 길
중·하 노인복지관을 순환하는 계단